

奎北日報

고창군, 도시민 귀농체험학교 운영

윤김성규 | ① 입력 2023-04-30 15:16 | ① 수정 2023-04-30 15:16



도시민 귀농체험학교/사진=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체험학교'를 운영했다.

2박3일동안 고창군 명소탐방, 귀농 우수사례 농가견학,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설명과 행복한 시골살이 준비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첫날 청보리밭축제장 탐방을 시작으로 선배 귀농인이 운영하는 베리촌 견학 및 체험,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견학,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설명, 허브를 활용한 치유농장인 보니타 정원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의 행복한 시골살이 준비 특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업의 현실과 전망, 농촌문화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해도 높은 설명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알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